

선한 길로 걷자

성경말씀: 렘6:16-19, 26-30

지난 몇 주: 하나님의 이혼 청구, 하나님의 회개 촉구, 하나님의 제안,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1.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자, 2. 진리를 구하는 자: 실행과 원칙이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 우리를 의롭게 한다.

5:30-31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심(1-15)

이혼 청구와 회개 촉구 그리고 제안에 이어 하나님은 바빌론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심. 시온의 딸은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으나 전쟁으로 폐허가 됨(2, 3).

예루살렘에는 온통 학대만 있어(6)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 황폐한 땅이 되고 밍(8).

그 이유: 1. 그들이 바른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10).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11:15; 계2,3장 7번), 2. 제사장, 대언자, 큰 자와 작은 자가 다 탐욕에 빠지고 거짓으로 행한다(13).

3.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고 백성을 속인다(14). 변영신학, 은사주의

4. 가증한 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15): 감리교 세습 폐지 결의(2012년 9월 25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길자연 목사(왕성 교회 세습 결정, 9월 27일), 유다와 우리의 현실

갈림길에 서 있다(16)

이제 유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 갈림길에 서 있다. <선한 길로 걷자>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우리 민족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 교회도 갈림길에 서 있다.

사랑침례교회, 결혼 생활, 가정생활, 직장, 배우자, 학교

하나님의 충고(16)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는다. 현 시대: 자동차길, 새 길이 좋다. 옛날에는 길을 개척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옛적부터 있던 길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닌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선한 길이다.

옛 행로: 이전의 것은 다 좋고 지금의 것은 다 바쁘다는 말이 아니다.

아브라함, 바울, 청교도가 살던 시대는 지금과 다르다. 우리는 친구약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배운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 6000년 동안 택한 길, 그 안에 선한 길이 들어 있다.

선한 길은 무엇인가?

1. 그것은 믿음의 길이다(히11:6).

가인과 아벨(창4:3-5),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에 무관심(히11:4). 가인의 길(유11): 악한 길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고급 제물을 바쳤다(20).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 그들의 종교 행위 자체가 그들을 넘어뜨린다(21).

롬10:2-3

우리 주 예수님마저도 그분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만다(고전 1:22-23).

A. 믿음은 보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신뢰하는 것(고후5:7), 눈의 현상과 꿈의 계시를 추구 No!

a. 교회의 초창기: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시켜 주셨다.

b. 신약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방언, 신유 같은 표적의 은사들, 사도, 대언자 같은 사역자들은 사라졌다.

c. 그래서 AD 90-1800년대 말까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다(스펠전, 웨슬레, 무디, 에드워드). 이것이 선한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d. 마귀는 1819년 이후로 사람들이 오순절 은사 표적 주의/변영신학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 1) 영국에서 에드워드 어빙의 초능력, 황홀경, 방언, 감정주의 추구
- 2) 1906년에 미국 LA에서 아주사 거리 현상으로 발전하면서 오순절 운동으로 변함
- 3) 그 뒤 1960년대를 거치면서 오순절주의는 천주교회로 흡수되어 은사주의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 4) 제3의 물결: 플러 신학교(피터 와그너, 존 워버), 빈야드, 토론토 축복, 펜사콜라 웃음 부흥,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코스, G12(피라미드식 제자 훈련), 두 날개, 신사도 운동, 국내 순복음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의 번영 신학, 큰 믿음 교회(신사도)
- 5) 이들의 주장(13-14), 특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추구한다(마12:39). 고후5:7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자. 성경 때문에 기뻐하자. 이 기쁨과 은사주의의 광란(록음악)은 다르다.

2. 그것은 의의 길이다: 발람의 길(벧후2:15-16; 민22-25)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불의의 샅을 추구하였다. 말1:10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에서 마땅히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전9:14).

그러나 교회나 목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신약 교회의 특징: 구약 시대의 계급 체계가 없는 것, 니콜라 당의 등장(계2:6)

AD 300년까지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함.

AD 313: 밀라노 칙령,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국교화,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함, 천주교 1000년 동안 중에 암흑시대, 카이사르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의 분리 원칙 무시(마22:21)

2013년도의 WCC는 불의의 길이다. 빌리 그래함, 로버트 솔러, 불의의 사역자, “불교에도 구원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

3.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다(시119:1).

시편 119편: 히브리 글자 자음 22개, 8절씩 176절

이합체(acrostic) 시, 첫 8절 알레프로 시작, 둘째 8절 빼트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 8개 단어 법, 증언, 훈계, 법규, 명멸, 의로운 판단, 말씀, 약속 등

119편의 길들: 9, 32, 35, 59, 104, 105, 176 등

말씀을 믿고 듣고 그것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다(창15:6). 히11의 믿음의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다(요

14:1-6). 도마와의 대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말씀이다(요1:1)

바른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다(6:17). 하나님이 파수꾼을 주신다.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읽고 판단해야 한다(행17:11-12). 바른 교리가 나온다(딤후3:16).

선한 길을 버리면 멸망이 기다린다(26-30)

16, 17절의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 우리는 어떤가?

대언자는 그들의 길을 시험하기 위해 세워짐(27).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는 자, 비방하며 다니는 자, 늦과, 쇠(28)

불을 때고 납을 녹여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그 일이 헛되다(29).

결국 그들은 버림받은 은이 되고 말았다(30).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있는가? 말씀대로 믿음을 통해 선한 길로 걷는가?

결론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싸인은 명확하다: 믿음의 길, 의의 길, 말씀의 길로 가라고 하신다.

이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